목포시, 내년 81개 사업에 정부예산 8500억

기존 6400억 보다 2000억 증액
해상풍력 플랫폼 구축 등 탄력
수산식품 수출단지조성에 300억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시 관련 예산이 81건 8499억원 반영됐다.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중앙부처(안) 6,374억원보다 2,125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시는 그동안 김종식 시장이 정부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현안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친환경선박 관련 산업과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한국섬진흥원 ▲목포~송정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등이다.

목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며 남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산업 육성은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21억5천만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73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개발(24억)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비(15억원)도 정부안에 반영됐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지원, 연구개발(R&D) 등을 집적하는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정부안에 공사비 300억원이 반영됐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은 총사업비 증액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538억원이 편성됐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은 다양한 기독교 역사유물 및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건의한 사업이다.

당초 부처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김 시장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면담하고 수시로 중앙부처를 찾아가 반영을 요청한 결과 실시설계비 2억원이 반영됐다.

국내 섬 발전 정책을 주도할 한국섬진흥원은 47억원이 반영됐다.

호남고속철(송정~목포) 2단계 건설 사업은 당초 부처안보다 증액된 계속공사비 5,234억원(철도공단기금포함)이 편성됐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고속화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공사비 246억원(철도공단기금포함)이 편성됐다.

이 밖에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15억) ▲북항 어선물양장 확충(149억원) ▲신항 예부선부두 건설(143억원) ▲관광거점도시 육성(52억5천만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40억원)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24억원) ▲어촌뉴딜 300사업(51억원) ▲국도77호선(압해~화원) 연결도로 개설(429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이름을 올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종식 시장은 "목포의 미래 먹거리인 3대 전략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나주사랑 상품권.

"국민지원금 신청하세요" 나주시, 6일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나주시는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접수받는다.

오프라인 신청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가구는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나주사랑카드 모바일 앱에서 하면 된다.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 다음 날 신용·체크카드, 나주사랑카드로 금액이 충전된다.

/나주(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울산 中企에 경영 지원을"

공정위·중진공
울산 중소 제조기업 현장 간담회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일 울산 울주군 린노알미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울산 지역 중소 제조기업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이세영 린노알미늄 대표 등 울산 지역기업 대표자 9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울산의 제조기업 수는 전체 사업체 중 8.9%에 불과하지만 2019년 기준 총 부가가치 중에서 61.8%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지역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원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 ▲매출채권 담보대출 활성화 ▲업력 7년 이상의 신성장 기업지원 확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 선복지원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노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도 울산지역의 수출은 자동차, 석유 화학제품, 선박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노력으로 전년동월 대비 4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기업현장 규제개선을 지속하고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영양군 공무원들이 농가일손을 돕고있다.

영양군 공무원, 농가 홍고추 수확 도와

영양군은 공무원이 본격적인 홍고추 수확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청기면 정족리와 산운리의 농가를 찾아 홍고추 따기를 실시했다.

영양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8.44%에 달하는 초고령화 지역으로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나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어려워져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을 고려하여 군은 지난 8월 중순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잠정 중단하고 있다.

이날 일손 지원을 요청한 청기면 정족리 김 모 씨는 "올해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여 수확기에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지속 되는 장마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군에서 신속히 지원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코로나 방역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손돕기에 참석한 공무원들도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상주시, 저출산 극복 일환 이달 말까지 가족사진 공모

상주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상주시 저출산 극복 가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9월 30일까지 개최되며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주제로 지정된 촬영장소(경천대, 경천섬, 학전망대, 나각산, 장각폭포, 삼백테마공원, 경상감영공원, 성주봉 한방산업단지, 함창명주테마공원, 상주곶감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접수 받는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1인당 2점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들은 활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 수상작이 선정된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무안군, 7.5억 투입 불무공원 새단장

시설교체·수목식재 등 리모델링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무안읍 불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총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안읍 교촌리에 위치한 불무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고 테마형 수목식재와 야간 경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오래된 보도블록이 교체되고 다양한 초화류로 이루어진 포켓 가든과 쉼터 등 테마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낙엽 관목 1000주 등을 추가로 식재하고 팔각정 조명 공사와 조형물 설치를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해 오래되고 낡은 불무공원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주민과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불무공원은 지난 1977년 조성된 무안군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이며,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9월 초 착공해 약 3달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11월 준공될 예정이다.

/무안(전남)=양수녕 기자

전남도, TV홈쇼핑서 농촌체험권 판매

5일 오후 6시25분부터 65분간

전라남도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TV홈쇼핑 채널에서 오는 5일 오후 6시 25분부터 65분간 생방송으로 농촌체험과 숙박 상품을 판매한다.

생방송 판매는 GS홈쇼핑에서 이뤄진다. 강진 푸소(FUSO)체험 1박2일 농촌체험상품과 도내 호텔·리조트 숙박상품을 판매한다. 푸소는 기분은 더욱 좋아지고 스트레스는 확 줄인다(Feeling Up, Stress Off)는 의미다.

강진 푸소체험은 포근하고 인심이 가득한 농촌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훈훈한 정과 감성을 경험하는 여행상품이다. 일반농가의 밥상을 맛보고, 주변 가우도 출렁다리, 다산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다. 목포 유달산과 섬·바다의 풍경을 짜릿하게 즐기는 목포케이블카도 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서울 용산역, 교대역 등에서 매일 우등버스를 운행한다. 강진군에서 체험비와 특산품을 지원해 여행자 1인 기준 12만 5천 원으로, 여행 경비도 아주 착하다.

/전남=양수녕 기자

전남도, 청년 스마트팜 육성 총 52명 20개월간 전문교육

전라남도는 미래 전남 스마트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 육성에 나선다.

도는 제2기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교육을 순천대학교 농업과학교육원에서 시작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에 참여한 청년은 스마트팜을 활용해 영농에 정착하도록 이론교육부터 현장·경영 실습, 전문가 컨설팅 등 20개월간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이번 교육생은 총 52명이다. 평균연령은 30.8세, 남자가 39명(75%), 여자는 13명(25%)이다. 농업을 전공하지 않은 교육생이 42명(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은 ▲작물재배 기초와 스마트팜 전반적 이론교육을 배우는 입문과정(2개월) ▲입문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도내 선도농가에서 실습하는 교육형 실습(6개월)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남=양수녕 기자